

##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총괄\_ 이성우 실장, 감수\_ 김형태 감리위원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국제물류시장 및 국제물류사업 동향 중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신규사업 발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업체 회원 및 관련분야 기업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관련 정부정책 등의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관련 국내 관심기업, 정·관·학계 관계자 여러분께 매주 수요일 배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국제물류관련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저희 센터로 연락<sup>1)</sup>을 주시기 바라며, 동일사업에 다수기업들의 투자요청이 있을 경우 본 센터가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및 지원들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lt; 목 차 &gt;

□ 중국 정부, 단둥항 확장에 71억 달러 투자 예정 -----	2
□ APM 터미널, 나이지리아 라고스항 1억 2천만 달러 추가투자 전망 -----	3
□ 자메이카 교통사업부, 항만 업그레이드를 주요 목표의 하나로 설정 -----	4
□ 상하이 푸둥신구, 해운업 발전 위한 세제 인센티브 전폭 적용 -----	5

1) 연락처: 송주미 전문연구원(02-2105-2872, jmsong@kmi.re.kr), 김홍매 전문연구원(02-2105-2828, hisgrace@kmi.re.kr),  
황현주 연구원(02-2105-2897, julya7@kmi.re.kr), 전해경 연구원(02-2105-2982, saei@kmi.re.kr)

2) 해외투자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위클리 맨 뒷장의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MI 국제물류위클리

## □ 중국 정부, 단동항 확장에 71억 달러 투자 예정

- 중국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단동(Dandong)항 확장에 45억 위안(약 71억 달러)을 투자할 예정
  - 향후 단동항의 연간 처리능력은 기존의 6,000만 톤에서 1억 톤으로 증가될 전망
  - 단동항은 확장 프로젝트를 통해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동북 교통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예정임
  - 단동항은 '12.5' 기간 중국 동북 및 동북아지역 교통물류의 중심지를 목표로 대형심수선석 60여개와 물동량 2억톤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항구의 대형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단동항은 중국 해안선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항만으로 랑토우(Langtou)강의 내륙과 압록(Yalu)강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아경제지역의 통로로써 러시아, 몽고, 북한, 한국, 일본으로 진출 할 수 있는 중요한 입지적 역할
  - 또한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으로 철도 및 도로를 통해 주요 간선 및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중국 전역에 대한 접근성이 높음
  - 현재 26개 선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약 2,600만 톤 이상의 화물과 18만 2,000 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함
- 올해 북한은 서해안의 황금평 경제특구와 동해안의 라선 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중국 정부로부터 지원 확정
  - 상반기 중국과 북한간 무역액은 31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34억 6568만 달러에 비해 87%나 증가한 수치임
  - 중국 투자기업들이 대북투자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어 가공무역관련 투자 확대로 인한 물동량 증가로 단동항의 급성장이 예상됨

&lt; 단동항 위치 &gt;



&lt; 단동항과 북한 경제협력 지역도 &gt;



자료: www.dpcmagazine.com, 2011.10.26; <http://www.dandongport.com> 2011.10.26

전혜경 연구원(☎ 02-2105-2982, [saeii@kmi.re.kr](mailto:saeii@kmi.re.kr))

## KMI 국제물류위클리

## □ APM 터미널, 나이지리아 라고스항 1억 2천만 달러 추가투자 전망

- 나이지리아 라고스항의 Apapa Container Temrinal(ACT)을 운영 중인 APM 터미널이 1억 2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ACT의 시설능력을 업그레이드 할 것으로 전망
  - APM 터미널은 2006년에 라고스항 ACT의 25년 운영권을 획득하였으며, ACT의 2010년 처리 실적은 48만 5천 TEU로 약 4년 만에 두배 이상 성장하였음
  - ACT의 고속성장에 힘입어 APM 터미널은 약 1억 2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ACT의 연간처리능력을 백만 TEU 이상으로 확보하는 계획을 올해 내로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망됨
  - APM 터미널은 우선적으로 컨테이너 야드 확대, 신규 장비 투자 및 세관시설 개선 등에 투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머스크 그룹은 사하라 이남 지역을 미래의 주요시장으로 설정하고 단기이익이 아닌 장기전망을 보고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머스크 그룹은 서아프리카 지역에 하역장비 조달 뿐 아니라 22대의 선박을 투입하는 등 총 약 25억 달러를 투자하였음
  - 또한 머스크 그룹이 서아프리카 시장 공략을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한 11대의 Wafmax 컨테이너 선박 중 6대가 투입되었으며, 나머지는 2013년 중에 투입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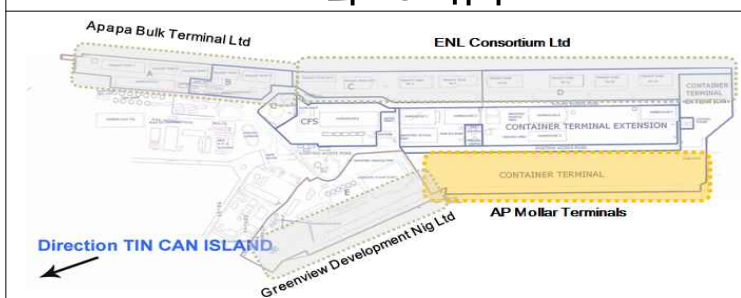
&lt; 라고스항 위치 &gt;



&lt; 라고스항 구성 &gt;



&lt; APMT의 ACT 위치 &gt;



자료 : www.thisdaylive.com, 2011.10.28.

송주미 전문연구원(☎ 02-2105-2872, [jmsong@kmi.re.kr](mailto:jmsong@kmi.re.kr))



# KMI 국제물류위클리

## □ 자메이카 교통사업부, 항만 업그레이드를 주요 목표의 하나로 설정

- 자메이카 교통사업부(Ministry of Transport and Works)는 자메이카와 서반구의 국가들과의 전략적인 위치를 활용하기 위해 항만 인프라 개선을 주요 목표의 하나로 설정
  - 교통사업부는 자메이카를 항만 활동의 중심지로 포지셔닝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에 파나마 운하의 확장이 완료되면 상당한 화물 처리량, 매출 및 고용 증대 효과로 이어질 전망임
- 항만 확장 및 기타 인프라 업그레이드는 '비전 2030 자메이카' 국가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진행
  - '비전 2030 자메이카'는 자메이카 최초의 국가 장기 발전계획으로 2030년까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임
  - 포커스 된 주요 항만으로는 킹스톤 컨테이너터미널(Kingston Container Terminal), 몬티고 베이(Montego Bay), 오초 리오스(Ocho Rios), 팔무스(Falmouth), 안토니오항(Port Antonio)임
- 최근 자메이카 항만당국은 오초 리오스와 몬티고 베이의 크루즈 운송의 확장 뿐만 아니라 킹스톤 컨테이너 터미널의 추가 확장을 위해 해운업체와 계약을 체결
  - 참여업체는 카니발 크루즈 라인(Carnival Cruise Line)과 CMA/CGM Group으로, 그들은 상당한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협상단계에 있음
  - 관계자에 의하면 킹스톤 컨테이너 터미널은 1억 3,000만 달러 규모의 준설공사가 예상되며, 확장된 파나마 운하가 오픈되는 2014년 시기에 맞추어 완공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또한 항만당국은 킹스톤항(port of Kingston) 확장을 위해 CMA/CGM가 1억 2,000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러한 항만 확장을 통해 킹스톤 컨테이너 터미널의 처리 능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킹스톤 컨테이너 터미널은 2004년에서 2011년 사이에 수입이 매년 6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 이상으로 두 배 이상 증가
  - 지난 몇 년간 킹스톤항 확장을 통해 처리능력이 40만 TEU에서 현재 280만 TEU로 대폭 증가하였음

### <킹스톤항 처리능력>

구 분	1995년	1997년	2001년	2005년	2008년
물동량	40만TEU	50만TEU	98만TEU	167만TEU	192만TEU
처리능력	40만TEU	80만TEU	120만TEU	150만TEU	280만TEU
시설가동율	100.0%	62.5%	81.7%	111.3%	68.6%

자료 : worldmaritimenews.com, 2011.10.27.

황현주 연구원(☎ 02-2105-2897, julya7@kmi.re.kr)



## KMI 국제물류위클리

## □ 상하이 푸둥신구, 해운업 발전 위한 세제 인센티브 전폭 적용

- 상하이 푸둥신구(浦東新區)는 빠른 시일 내에 상하이를 국제해운센터로 건설하기 위해 전폭적인 세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
  -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앞으로 상하이에 정착하는 해운기업에 대한 세제부담이 홍콩과 싱가포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sup>1)</sup>
- 금번 인센티브 적용대상은 중점 해운서비스기업, 첨단 해운서비스기업, 대형 해운 선진제조 및 유지보수 기업, 고성장 해운기업, 국내외 유명 해운기구 등 5개의 유형으로 나뉘며, 이들에게 일회성 보조금, 세제 보조금 및 소프트웨어 환경 구축을 지원
  - 등록자본이 일정 조건에 부합되는 선사, 해운회사, 물류회사 등 중점 해운서비스 기업에 대해 지방세<sup>2)</sup>를 3년간 100% 면제, 그후 3년간 50% 감면하며, 동시에 최고 등록자본의 20%를 일회성 보조금으로 제공함
  - 또한 임원 개인소득세는 최고 40%를 전액 지원하며, 중간층 관리자와 선장 등 전문 기술자는 최고 20%의 개인소득세를 지원함
  - 등록자본이 일정 조건에 부합되는 금융리스회사, 해운보험기구, 해운정보컨설팅기구, 해운중개기구, 해운법률서비스기구, 해사훈련기구 등 고급 해운서비스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2년 면제, 3년 50% 감면'하며, 동시에 최고 등록자본금의 20%를 일회성 보조금으로 제공함
  - 대형 해운 선진제조 및 유지보수 기업 중 영업수익 연평균 성장률이 30% 이상인 고성장 해운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2년 면제, 3년 50% 감면'하며, 국내외 유명 해운기구에는 일회성 보조금을 지원함
- 그밖에 푸둥신구는 앞으로 5~10년간 해외 업무경험이 풍부하고 국제규칙과 관리에 능통하며, 핵심기술을 숙지하고 해운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100명의 해외 고급인력을 유치할 계획
  - 이들에게는 50만 위안(약 7만 8,700달러)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5년 내에 무료 아파트를 제공하며, 별도로 50만 위안의 정착 보조금을 지원함과 동시에 3년간 세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함

자료: finance.ifeng.com, 2011.10.26.

김홍매 전문연구원(☎ 02-2105-2828, hisgrace@kmi.re.kr)

1) 해외 다수 국가들은 해운기업으로부터 톤세만 징수하지만 중국은 해운기업도 일반기업으로 간주하여 영업세와 소득세, 증치세 등을 징수

2) 영업수익과 이윤으로 형성되는 지방세에는 기업소득세와 영업세 및 증치세 등이 포함되며, 그 중 증치세의 경우 75%는 중앙정부, 25%는 지방정부에 귀속됨

## KMI 국제물류위클리

##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